국민연금의 이해와
퇴직연금의 선택기준

국민연금 계산구조

균등 (평등주의)

- 균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

소득비례 (능력주의)

- 소득에 비례해서 (불입금액에 비례) 차등 지급

국민연금의 장점

1.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입자간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여 주는 효과(사회갈등 최소화)

2. 물가 변동률, 임금 상승률 반영한 실질가치 보장

-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환산 소득
-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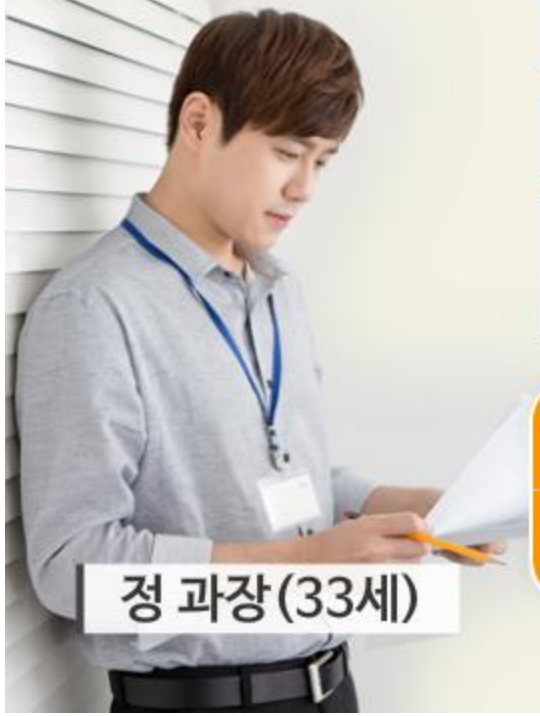
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지급함으로써
인플레이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!

국민연금의 조회방법

"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
연금수령 예상금액 확인 가능"

국민연금 수령액과 불입기간

"불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수령액"



정 과장(33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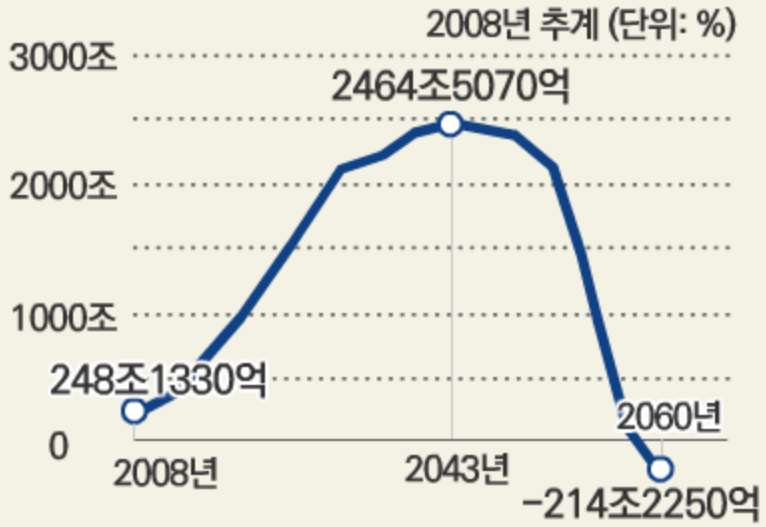
불입기간	39년
연금수령 시점	2040년
연금수령 예상액	111만 원 (현재가치 기준)

재정난으로 수령액 감소 예상

30년	75%(약 83만 원)
20년	50%(약 55만 원)

국민연금 재정과 수령액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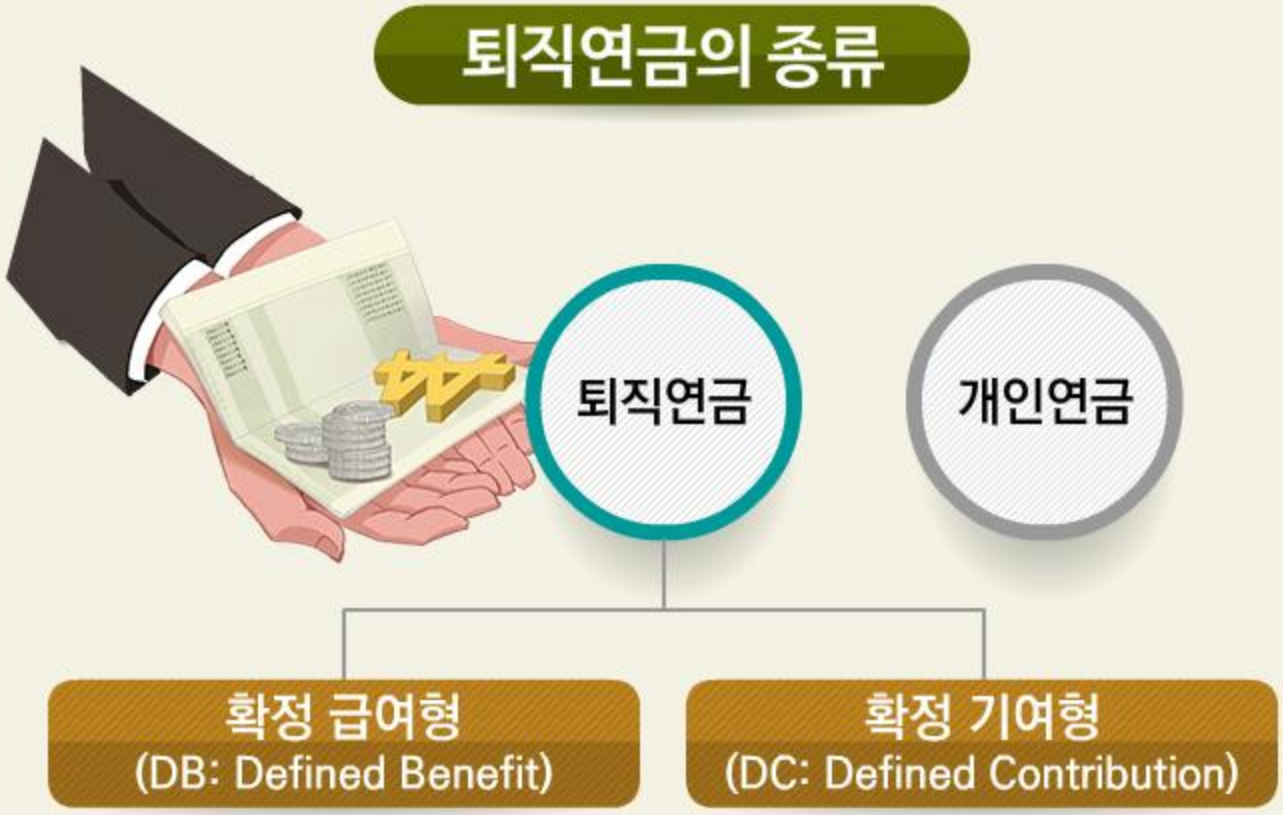
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전망



❖ 자료: 보건복지가족부·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

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 및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이해

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이해

퇴직연금의 종류 — 확정 급여형 (DB형)

[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
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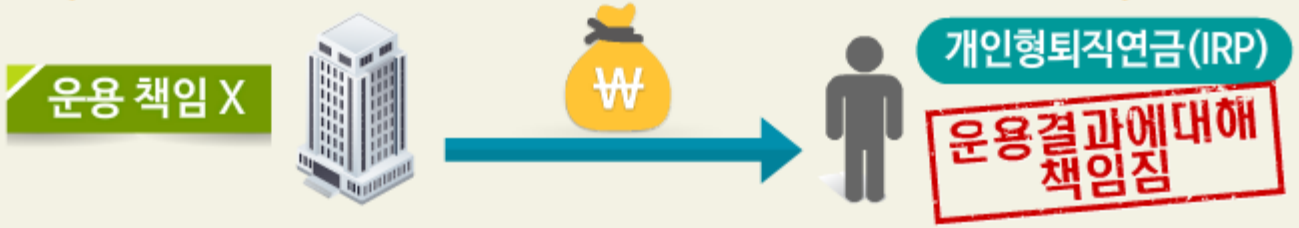
- 적립금 운용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
- 퇴직자산의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음

확정 급여형(DB형)의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이해

퇴직연금의 종류 — 확정 급여형 (DC형)

[사전에 사용자의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액수가 변동되는 제도]



- 금융(운용)회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액수 달라짐

	세액공제
연봉 5,500만 원 미만	15%(최대 700만 원)
연봉 5,500만 원 이상	12%(최대 300만 원)

확정 기여형(DC형)의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세제혜택, 연금수령액수를 높여라!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선택기준

DB형과 DC형의 공통점

확정 급여형 (DB: Defined Benefit)	확정 기여형 (DC: Defined Contribution)

- ✔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적립되는 사외적립제도
- ✔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장 가능(퇴직수급권 보장)

DB형과 DC형의 차이점

1 투자위험의 주체

	확정 급여형 (DB: Defined Benefit)	확정 기여형 (DC: Defined Contribution)
회사	운용 책임 O (운용실적이 나쁠 시 경제적 부담 발생)	운용 책임 X
근로자	운용 책임 X	운용 책임 O (운용실적이 나쁠 시 퇴직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음)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선택기준

DB형과 DC형의 차이점

2 퇴직급여수령권의 안정성

확정 급여형 (DB: Defined Benefit)	확정 기여형 (DC: Defined Contribution)
퇴직금 수령권 100% 보장 X	퇴직금 수령권 100% 보장
사외 적립으로 퇴직금 70% 이상 보장 (2017년 부터 : 80%, 2019년 : 90%, 2020년 : 100%)	사외 적립으로 퇴직금 100% 보장

DB형과 DC형의 차이점

3 퇴직연금의 이동성

확정 급여형 (DB: Defined Benefit)	확정 기여형 (DC: Defined Contribution)
연금의 이동성이 낮음	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어 이동성이 높음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선택기준

DB형과 DC형의 차이점

4 퇴직금의 실질가치보전

유리함

확정 급여형 (DB: Defined Benefit)	확정 기여형 (DC: Defined Contribution)
임금 인상률 (3%) < 물가 상승률 (5%)	물가 상승률 < 운용 수익률
→ 퇴직금의 구매력 감소	→ 물가 상승률 이상의 운용수익을 거둘 경우 문제 X

임금 상승률 < 운용 수익률 = DC형 유리
임금 상승률 > 운용 수익률 = DB형 유리

DB형과 DC형의 차이점

5 추가적립 가능성

확정 급여형 (DB: Defined Benefit)	확정 기여형 (DC: Defined Contribution)
• 추가적립 가능 • 세액공제 가능	• 추가적립 가능 • 7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• 세액공제 혜택

퇴직연금(DB형, DC형)의 선택기준

DB형과 DC형의 선택

어느 것이 안정적으로
더 많은 퇴직금을
보장해주는가?

임금 상승률 〈 운용 수익률 = 확정 기여형(DC) 유리

임금 상승률 〉 운용 수익률 = 확정 급여형(DB)유리

임금 인상률과 운용 수익률이
퇴직연금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

개인연금과
은퇴설계

우리나라의 연금체계

공적연금

-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운용
- 1차적인 기본보장
-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음

사적연금

- 2차적인 보장체계
- 개인사업자는 보장 X
  (보완책: 노란우산공제)

사적연금

-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

개인연금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부분을 보완해야 함

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

적격연금

- 세액공제 가능
- 5년 이상 납부
-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수령
-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
  → 세금 부담을 연기시키는 효과

비적격연금

- 세액공제 불가
-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비과세
-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:
  이자소득세 비과세
- 은퇴 이후에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

개인연금과 은퇴설계

적격연금

→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

- 연간 1800만원씩 납입 가능 (연 400만 원 세액공제)

"노후자금 설계에는 적은 금액"

비적격연금

→ 은퇴설계에 적합한 연금

-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며 연금자산 확보에 적합

은퇴설계 시 비적격연금을 적극 활용하라!

비적격연금의 특징

세금과세 문제가 없고, 가입 규모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인 은퇴플랜이 가능

즉시형 연금, 거치식 : 은퇴설계에 유용한 수단

✔ 즉시형 연금
- 목돈 보유의 위험 제거
- 은퇴기간 동안 안정적 현금수입 보장
  (10년 이상 변액연금 : 투자 차익 + 비과세)

✔ 종신형 연금 : 10년 미만 시에도 금액에 상관 없이 비과세(상속형은 2억 원까지 비과세)

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의 차이점

적격연금의 특징

연간 1800만원씩 납입 가능
(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)

→ 월 33만 원 이상 납입할 이유가 없음

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
운용수익부분만 과세

개인연금의 중도해지와 불이익

- 연금으로 지급 X
- 일시금으로 지급 → 기타소득

기타소득세의 특징

일시금 수령액의 15% 원천징수
(사망에 따른 해지 일시금은 12%)

일시금 수령 시 과세액 〉 납부 당시 세액공제 금액
→ 손해 발생

원천징수 후 모든 세금절차 종결
→ 종합소득에 합산 X

기 세액공제 금액(15%) 반납

기타소득세의 특징

해지 가산세 부과

2013년 이전 계약	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불입원금 2%의 해지 가산세 부과
2013년 이후 계약	연금수령 개시일 후 5년 이내 해지 시 연금소득 누계액의 10%의 해지 가산세 부과

만기 후 수령 시점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 시 가산세 부과

금융기관 간 계좌이체를 통해서 계약이전 시 불이익 없음

적격연금은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
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로 인한 손해 발생 유의

비적격연금의 중도해지

→ 중도해약 시 별다른 불이익 없음

10년간 보험차익에 대한 **비과세 혜택 없음**

해약시점까지 발생한
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담

적격연금은 연간 400만 원 범위 내에 불입하는 것이
유리하며 **은퇴설계를 위해서는 비적격연금을 활용하라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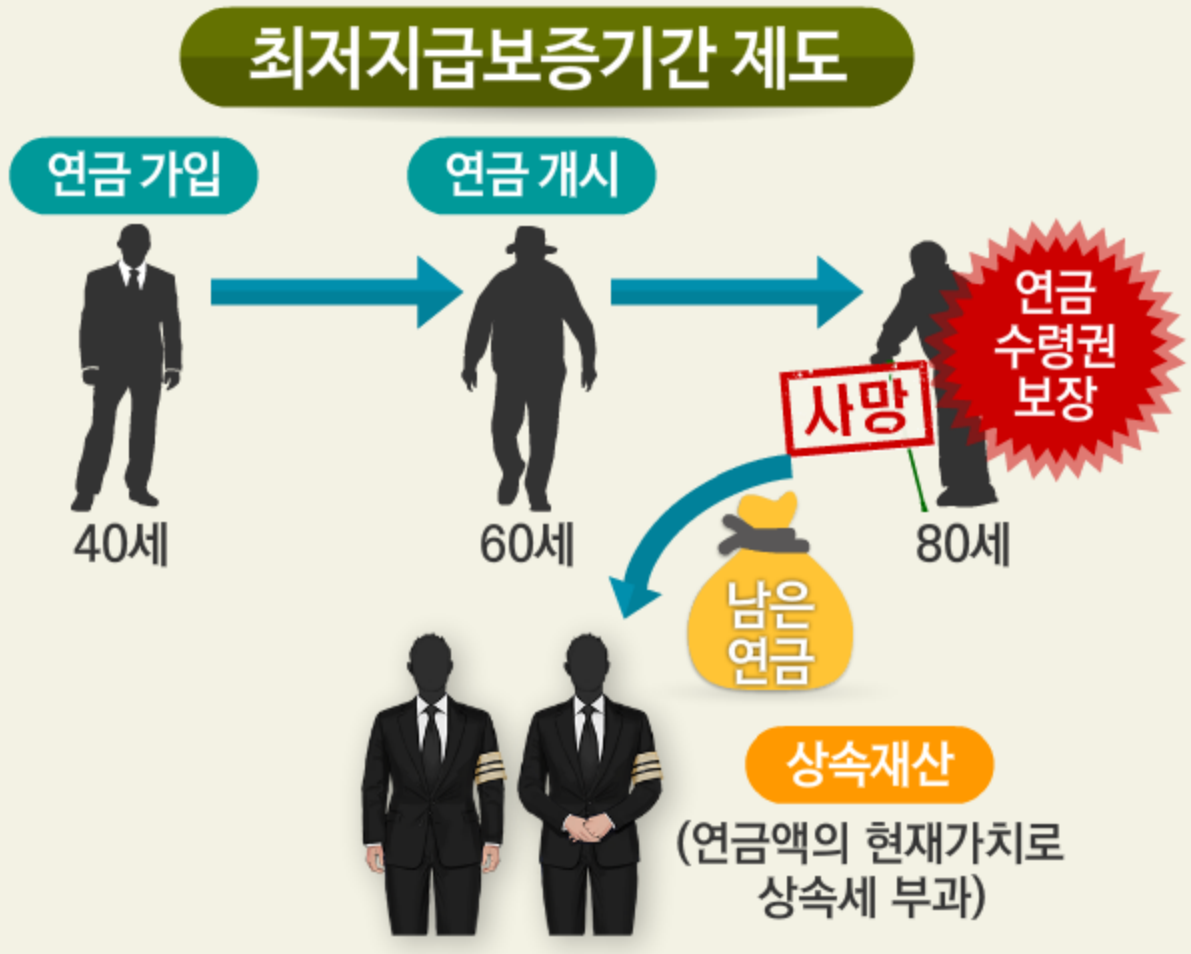
종신형·확정형·상속형연금의 선택기준

지급방식에 따른 연금 종류

종신형 연금 | 확정형 연금 | 상속형 연금

-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, 보험사에서만 판매
- 기대수명 연장 추세에 따라 종신형에 가입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음
-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음
- 장기간 가입 시 많은 금액 수령 가능
- 최저지급보증기간 제도
- 최저이율을 보장해 저금리, 저성장 위험 최소화

종신형·확정형·상속형연금의 선택기준



종신형·확정형·상속형연금의 선택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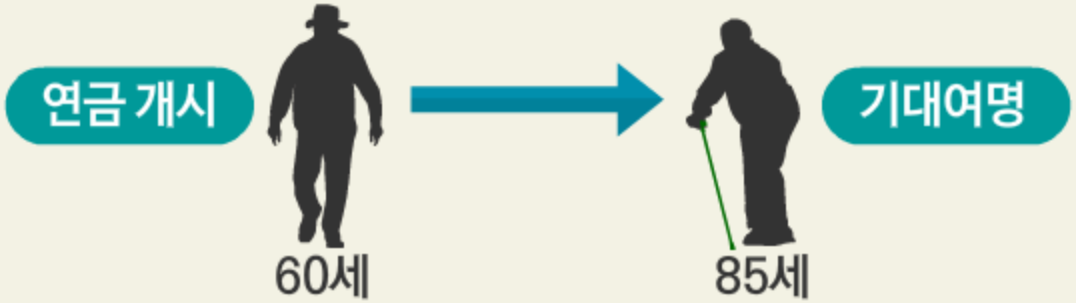
지급방식에 따른 연금 종류

종신형 연금

확정형 연금

상속형 연금

- 사망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 수령



- 확정기간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음
- 수령연금 액수 예측 가능

종신형·확정형·상속형연금의 선택기준

지급방식에 따른 연금 종류

종신형 연금

확정형 연금

상속형 연금

- 은퇴설계 + 재산이전 결합 형태

상속 만기형

만기를 정해 놓고,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다가 만기 시점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상품

상속 종신형

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다가 사망 시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

- 연금상품 중 연금액수가 가장 적음
- 원금 보존

종신형·확정형·상속형연금의 선택기준

연금 종류별 수령액 비교

- 기간이 짧을 수록 수령액이 많아짐

적립식과 일시납의 선택

적립식 연금

일시남 연금

- 매월 불입된 돈을 재원으로 연금지급
- 목돈이 없는 일반인들의 연금설계 방식

종신형·확정형·상속형연금의 선택기준

적립식과 일시납의 선택

적립식 연금

일시남 연금

- 여유자금이 많은 자산가들이 선호

한번에 거액 예치 후 익월부터 연금 수령 (종신형과 결합) ← 즉시형 연금

거치형 연금 → 일시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 수령 (확정형과 결합)

- 세제상의 이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
- 비과세 혜택을 위해 연금보험으로 설계
- 상속형으로 설계 시 2억 원까지만 비과세
  → 그 이상은 종신형으로 설계